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할머니는 박스를 줍는다

20162878 경제학과 김홍식

초거대 위협 줄거리

닥터 둠, 종말론자로 불리는 루비니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초거대 위협이 어째서 피할 수 없는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왜 해결할 수 없는 형태로 진화 중인지에 대해 388 페이지 라는 방대한 양에 걸쳐 설명한다. 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고작 6 페이지를 할당했으며, 10가지 초거대 위협이 아무런 문제없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며 11 페이지에 걸쳐 말한다. 루비니 교수는 10가지 초거대 위협을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부) 과도한 부채와 스태그플레이션

2부) 달러의 붕괴, 탈세계화, 인공지능, 지정학, 기후변화에 의한 위기

1부에선 잘못된 정책과 포퓰리즘, 고령화, 부채로 문제의 해결을 반복해온 역사 등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이 부채를 증가시켜왔고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위기, 거대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설명한다. 이 모든 것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마치 트럼프 카드로 세운 탑처럼 위태롭고 기이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유가 상승,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위태롭던 카드탑이 무너졌다. 루비니 교수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경고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루비니 교수를 비웃으며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예전보다 더 거대하고 위태롭게 카드탑을 세우고 있다. 과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정부부채와 포퓰리즘으로 말이다.

2부에선 단순 경제적 문제가 아닌 다양한 영역에 걸친 위기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이 위기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훨씬 거대한 위협을 불러올 것이라 설명한다. 지정학적 분쟁(미중 갈등)은 달러의 무기화를 불러와 탈세계화를 가속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기후변화로 인해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고 기후재난에 더욱 고통받을 것이며 이는 가난한 국가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다. 고통받는 가난한 국가는 수많은 난민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로 인해 탈세계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수많은 위기와 문제가 얹혀 있어 어느 것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고 풀지 못하면 다가올 미래는 절망적일 것이다.

경제학자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초거대 위협에 자본주의와 금융의 모순에 의한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산은 경제가 하지만 선택은 정치가 한다. 루비니 교수는 불과 6페이지에 걸쳐 초거대 위협의 해결방법에 대해 말한다. 그렇다 해결책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존재한다. 그것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실행되지 못할 뿐이다.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할머니는 박스를 줍는다. 이 모순의 해결책은 간단하되 절대 실현되지 못한다.

비평

마부는 택시기사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은 기존의 직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냈다. 자동차가 등장하자 마부는 일자리를 잃었고 마차 바퀴를 만드는 회사는 문을 닫았다. 그러나 자동차 타이어를 만드는 기업이 생겼고 택시기사라는 직업과 운송업이라는 직업군이 새로 생겼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이 새로 생겼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기술은 직업의 수를 늘리고 다양화하는 데 일조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마부가 택시기사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완전자율주행이 상용화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정 되어있다. 운전기사들은 모두 직업을 잃을 것이며 자율주행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가, 프로그래머,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개발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택시업과 운송업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사라질 일자리는 저임금 저학력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새로 생길 직업은 고임금 고학력 일자리가 될 것이다.

맥킨지의 최신 보고서인 'Generative AI and the future of work in America' 에 따르면 2030년까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일자리 수요는 23% 증가할 것이며 생성형 AI의 역량 강화로 인해 사무실 지원, 고객 서비스의 수요는 각각 18%, 1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 같은 직업수요의 변화는 여성, 흑인 및 히스패닉에게 치명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약자(저학력, 저임금)는 지금 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고 STEM을 전공한 강자(고학력, 고임금)들은 지금 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직업 격차는 빈부 격차의 심화, 계층 갈등을 불러올 것이며 이로 인해 디스토피아 영화에 등장하는 절망적이고 암울한 사회가 도래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Chat GPT의 개발사 오픈AI의 CEO 샘 알트먼의 해고에 숨겨진 세계관 충돌

인공지능 개발로 인해 빈부 격차와 계층 갈등이 심해져 그늘진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가정이 먼 미래의 이야기 같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오픈AI의 CEO 샘 알트먼이 해고된 사건은 인공지능의 전례 없는 강력한 발전이 근시일내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몇몇 오픈AI의 연구원들이 "현재 개발중인 '프로젝트 Q스타'로 인해 스스로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어 대부분의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고도의 자율화된 시스템, 즉 강인공지능이 탄생될 것이며 이는 인류의 거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는 내용의 편지를 이사회에 썼다. 그리고 샘 알트먼이 프로젝트 Q스타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표를 한 바로 다음날, 이사회는 이 프로젝트가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해 샘 알트먼을 해고했다. 이를 두고 Bloomberg는 "세계관 충돌의 정점이었다"고 평했다. 상업적 야망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

을 강행한 세계관과 인류를 멸망시킬 지 모르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막기 위한 세계관의 충돌이었다는 것이다. 샘 알트먼을 해고한 오픈AI의 이사회는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자의식 과잉에 의한 오판” 이었다고 비판 받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종말을 막을 마지막 기회였다며 재평가될지 모를 일이다.

의자 뺏기 게임

자본주의는 아이들의 의자 앉기 놀이와 다를 바 없다.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은 낙오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면 언제나 탈락자가 생긴다. 의자는 언제나 사람보다 모자라기 때문이다. 루비니 교수가 2부에서 설명하는 초거대 위협들 달러(금융)의 위기, 지정학적 위기, 환경변화의 위기, 탈세계화로 인한 위기는 모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빼앗기 위한 행동에서 시작된다. 현재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 특히 서방국가들은 200년간 화석연료를 통해 탄소를 마구 내뿜으며 국가를 성장시켜왔다. 그러곤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성장을 시작해 보려고 하자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 화석 연료 사용에 제한을 뒀다. 정작 서방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전혀 줄이지 않았고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경제학의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사람 수에 비해 의자는 부족하다. 누군가는 탈락할 수밖에 없게 설계된 게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처럼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살게 두고 잘 살고 있는 나라는 계속 잘사는, 심지어는 옆사람의 의자를 뺏기 위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온갖 무기를 활용한다면 당연히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의자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현실세계에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자원, 에너지, 종교, 이념의 갈등을 포함한 현재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미루어 보건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계는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의자에 앉지 못한 아이를 위해 자신의 무릎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야 할 길

대만 침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남중국해를 주장하며 아시아의 수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패권국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혹은 길들이기 위해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탈세계화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되고 있다. 중국이 만약 일본처럼 미국에 굴종하는 나라였다면 과연 미국은 중국을 주저 앉히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과거 일본은 미국 GDP의 70%까지 따라잡았다. 미국의 대외무역적자는 40%가 일본에서 발생됐다. 당시의 일본은 지금의 중국과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다. 1983년 11월 ‘론-야스 밀월’로 불리는, 일본의 야스히로 총리가 일본 전통가옥에서 다리를 꼬고 앉은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직접 차를 달여 정성껏 대접한 것이 대서특필

되었다. 또한 미국에 대한 무조건 적인 “YES”는 일본 내에서도 ‘조공 외교’ 라며 비판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주군으로 모시듯 무릎 꿇고 차를 대접한 ‘에스맨’의 대가는 ‘플라자 합의’였다. 미국은 ‘플라자 합의’와 ‘슈퍼 301조’를 통해 일본을 주저 앉혔다. 중국이 이러한 역사를 고려해 반미, 전랑외교를 펼치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이 미국에 굴종했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내버려두었을 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 소련, 중국을 보건대, 미국은 결코 2인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 당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자고 압박을 가했다. 당시 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부통령은 중국에서 보복을 가하면 미국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한국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다. 그 대가는 중국의 ‘한한령’이었고 책임지겠다고던 미국의 부통령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부통령, 즉 바이든이 현재 미국 대통령이 되어 한국에게 다시 한번 압력을 넣고 있다.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중국이 보복하면 미국이 책임지겠다고.

외교계에선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무게를 더했다. IMF는 한국의 저성장 탈출 해법에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와 교역하는 것을 제시했다. 안보를 완전히 미국에게 맡긴 대만은 정작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힘 썬 사람의 말에 “YES” 라고 말하며 무작정 따라가면 어찌될지 과거의 일본이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보여주었다. 거스를 수 없는 파도에 떠밀려 가더라도 반도체, 배터리 같이 한국이 가진 무기를 활용해 최선의 발버둥을 치며 앞으로 나아갈 때야 말로 우리만의 길이 보일 것이다.

달려오는 사자가 무서운 타조는 모래바닥에 머리를 파묻는다.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초거대 위협 10가지 모두 자본주의의 모순이나 문제점에 의한 것들이 아니다. 전부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의한 것들이다. 경제학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잘 없다. 단지 이를 선택할지는 정치에 의해서, 동기는 욕망에 의해서, 명분은 정의를 위해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에 의해 다가오는 초거대 위협은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다가올 위협이 두려워 하늘을 보지 않는다. 달려오는 사자가 무서워 모래바닥에 머리를 묻는 타조처럼 말이다. 루비니 교수는 다가올 위협이 두려워 쳐다보지 않으려는 것을 영화 “Don’t look up”이 잘 표현한다고 평했다.

앞서 말한 타조이야기와 ‘끓는 물의 개구리’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타조와 개구리 이야기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것이다. 눈을 감고 있는 타조에게 다가올 운명은 죽음 뿐이다. 루비니 교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을 똑똑히 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다가올 절망에 좌절하고 있어야 하는가? 다음 문장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빛나간 맬서스의 인구론, 그는 기술진보를 예측하지 못했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 이창용 "한국, 구조개혁하면 2%대 성장... 정치에 달렸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 Generative AI and the future of work in America(July 26, 2023)

REUTERS - OpenAI researchers warned board of AI breakthrough ahead of CEO ouster, sources say

EBS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1부 돈은 빛이다

유튜브 삼프로TV - 우리는 일본의 한반도전략을 너무 모른다! f.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한국경제 - 빛나간 맬서스의 인구론...그는 기술진보를 예측못했다